

제천시 전통주거의 창호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indows and Doors of Traditional Houses in Jecheon

Author 이완건 Lee, Wan-Geon / 정회원, 세명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windows and doors of traditional houses in Jecheon, designated as a cultural assets in Chungcheongbuk-do. It aimed to contribute to the study of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by finding the characteristics of windows and doors, and to the preservation and reuse policy of local cultural assets.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research methods of the literature and field survey, and it was to analyze and to compare the existing data and a current status. The result are as followings. Firstly, the windows and doors of kitchen in An-chaе were generally installed double swinging type with wooden board door(板張門). Secondly, the windows and doors of An-bang were generally installed double swinging type with slender-ribbed windows and doors(細箭窓戶), were mostly installed Merum(遠音). Thirdly, the windows and doors of Daechung(大廳) towards the backyard were generally installed double swinging type with wooden board door, corrugated cardboard door(骨板門) and slender-ribbed windows. Lastly, the windows and doors of Sarang-bang in a house of nobility(班家) was installed triple windows and doors.

Keywords 전통주거, 제천시, 창호, 특성, 문화재
Traditional House, Jecheon, Windows and Doors, Characteristic, Cultural Assets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의의

주택은 인간의 삶을 반영한 집약체로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 속에는 각 민족 고유의 생활 패턴이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과거의 주거를 연구함으로써 사라진 무형의 생활양식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동시대의 주거사, 건축사 등 여러 학문 분야의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창호는 전통건축의 입면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전통건축의 복원 및 현대건축에서 전통성 표현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제천시 소재의 전통주거를 대상으로 현장답사 및 실측조사, 관련 문헌들의 분석을 통하여 공간별 창호의 형태 및 크기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천지역 전통주거의 창호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동시대 및 지역별 한국 전통건축의 연구에 일조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정책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시도지정문화재인 충청북도 유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 7채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제천시 전통주거의 건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선행 연구¹⁾의 후속 연구로 안채와 사랑채 등 공간별 창호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문헌조사, 현장답사 및 실측(2012년 10월, 11월) 등을 통하여 각 전통주거의 창호를 조사하였고 기존의 자료와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2장에서 전통 창호의 개념과 특성으로 전통주거에서 창호의 개념, 역사, 구성 및 종류 등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각 연구대상 전통주거의 창호 현황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각 공간별 창호의 특성을 분석하고 5장에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2. 전통 창호의 개념과 특성

2.1. 전통주거에서 창호의 개념

1) 이완건, 제천시 전통주거의 보존현황 및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4호, 2012.08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창호는 일반적으로 창(窓)과 문(門)을 통틀어 의미하며, 건물에 드나들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 문이고 건물의 내부공간에 빛과 공기를 받아들이고 조망을 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 창이다. 이 문과 창을 서양건축에서는 'Door'와 'Window'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한국 전통건축에서는 그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문과 호(戶)는 출입에 필요한 시설로, 빛과 공기를 받아들이기 위해 설치한 창과는 구분된다. 또한 집의 출입에 필요한 대문 같은 것은 문이고, 방에 드나드는 데 필요한 시설은 호이다.²⁾





전통주거의 창호는 출입, 채광, 환기 및 통풍의 목적 외에도 공간의 활용을 위한 벽체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전통건축에서 한지를 바른 문과 창은 서양건축의 문이나 창처럼 공간을 구획하고 한정하는 기능이 아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완충시키는 기능을 가진 절제의 공간이다. 물리적, 시각적, 청각적으로 철저하게 구획된 폐쇄적 구조인 서양 집들의 벽과 문과는 달리 한국 전통주거의 벽과 문들은 사람의 맑고 적음에 따라 가운데 장지문을 설치함으로써 구획을 대신한다. 이러한 벽과 문은 의식적인 구획일 뿐 실체는 모두 통하는 열린구조이다.³⁾

2.2. 전통 창호의 특성

(1) 창호의 역사

창호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창과 문을 통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17세기 이후로 차츰 호라는 명칭은 사라지고 문으로 대체되고 있다.⁴⁾ 창호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 벽에 설치하여 사람의 출입과 채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폐장치로서 창호의 역사는 건축의 역사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에 건축물이라 할 수 있는 구조물은 신석기 시대의 움집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으며, <표 1>의 제천 능강리 집터에서 알 수 있듯이 움집에서는 사람들의 출입을 위한 문만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후대인 삼한시대의 집을 묘사한 중국의 문헌에 “토실을 짓고 사는데 그 모습이 흡사 무덤과 같고 창호가 위에 설치되어 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렇듯 한국 전통건축에서 창호의 확인은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인 봉정사 극락전을 비롯해 고려시대 건축들로서 그 이전에는 문헌 및 유물 등을 통해서만이 그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표 1>과 같이 가야시대의 가형토기에서는 중앙에 문이 있고 그 좌우로 창이, 고구려의 마선구 고분 벽화에서는 귀틀집 구조의 벽에 창이, 백제 동탑편에서는 빗살 창호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표 1> 고려시대 이전의 창호 사례

문(門)	문+창	창(窓)	
움집(복원)	가형토기	고분벽화	유물
			
제천 능강리 집터 (청동기)	집모양 토기 (가야)	마선구 1호분(고구려)	백제 동탑편(백제)

<표 2> 전통주거 창호의 구성 예(정원태가옥의 사랑채 부분)

창호 구성 (정원태가옥, 충청북도 제천시)	비고
	머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
<p>머름 위에 세살(띠살) 형태의 쌍여닫이 창호의 설치 예 (문지방과 문인방 사이에 문설주를 세우고 그 사이에 2짝의 세살 창호 설치)</p>	

(2) 창호의 구성 및 종류

한국 전통건축의 창과 문은 형태와 크기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고 창호로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대문, 중문, 협문, 쪽문 등과 같이 외부에 설치된 독립된 문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실내공간에서의 창과 문을 구분하지 않고 창호로 통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표 2>와 같이 출입하거나 빛을 들일 목적으로 문짝이나 창을 내려고 기둥 사이에 설치하는 수장과 벽선의 짜임새를 통틀어 문얼굴이라 한다. 문얼굴은 시대에 따라 그 구성이 다르고 집의 격조에 따라 다르며 집주인의 됄됨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집을 알려면 먼저 그 집의 문얼굴을 보라는 말도 있다. 우리나라 살림집에 있어서 문얼굴의 구성법이나 구성요소는 중국이나 일본의 그것과는 다르다.⁵⁾

창호의 문짝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틀을 짜고 그 속에 살대를 끼워 넣게 되며 <표 3>⁶⁾과 같이 살대의 조합 형태에 따라 세살, 정자살, 아자살, 완자살 등으로 구분하고 살대가 없는 판장문과 골판문이 있다. 또한 개폐방식에 따라 미닫이, 여닫이, 들어열개 등으로, 기능에 따라 쌍창, 영창, 흑창, 갑창 등으로, 사용위치에 따라 창(살창과 교창 등), 문(판장문과 골판문 등), 그리고 창과 문(세살과 용자살 등)의 혼합된 성격을 지닌 창호로 분류한다.

2) 주남철, 한국의 문과 창호, 초판, 대원사, 서울, 2012, p.10

3) 박명덕, 한옥, 초판, 살림출판사, 파주, 2005, pp.86-87

4)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건축용어사전, 초판, 동녘, 파주, 2012, p.219

5)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초판, 열화당, 서울, 1991, p.287

6)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건축답사수첩, 초판, 동녘, 파주, 2008, p.90
와 주남철, 한국의 문과 창호, 초판, 대원사, 서울, 2012, pp.87-103 참조

<표 3> 전통 창호의 종류 및 분류

분류	종류	비고
개폐방식	미닫이, 미서기, 여닫이, 들어열개, 벼락닫이, 불박이	한국건축역사학회 분류 참조
기능	분합, 쌍창, 독창, 영창, 흑창, 갑창, 사창, 불발기, 장지, 광창	
살대 유무	살창(문) 판문	
사용 위치	창	주남철 분류 참조
	문	
	창+문	

3. 제천시 전통주거의 창호 현황분석

3.1. 제천의 지리 환경

(1) 지형과 기후

제천시는 충청북도의 지형구분에서 북부산지와 동부산지가 분포한 지역이다. 북부산지는 충청북도내에서도 가장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태백산맥의 서쪽사면인 고도 약 1,000mm의 산지들이 분포하고 중앙부에 제천분지가 위치해 있다. 또한 동부산지는 대체로 저평한 지형과 험준한 산지가 연속한 지역이다. 제천시의 중앙의 분지에 충주호가 위치하고 있다. 2002년 자료에 의하면 제천시의 연평균기온은 10.4℃이고 7월이 가장 더운 23.9℃, 1월이 가장 추운 -2.9℃를 나타내었다. 평균 최고기온은 7월이 28.9℃, 평균 최저기온은 1월이 -8.5℃를 나타내었다. 또한 연강수량은 1,500.4mm로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 1,200mm 보다 많았다.⁷⁾

(2) 충주댐 수몰지역

연구대상 사례들은 모두 1985년 충주댐의 건설로 인하여 현재 이전·복원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최초 건립된 지역의 지리 환경을 살펴봄으로서 초기의 건축계획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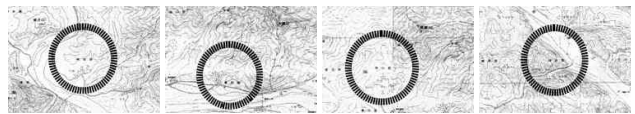
충주댐의 건설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이 청풍면과 한수면이다. <그림 1~7>과 같이 청풍면 도화리는 복숭아꽃이 많이 피었던 곳으로 경지는 논이 극히 일부였고 밭이 27ha였다. 청풍면 황석리는 천수답을 재배하거나 타동리에 논농사를 경작하는 일부 농가 이외는 짚을 사먹으면서 밭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았다. 청풍면 후산리는 북서쪽에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남경사의 분지형에 위치한 산간마을로 수원이 풍부하였다.

수산면 지곡리는 남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강변과 마을 사이에 큰 연못이 있고 늪 아래 강변 옆으로 넓은

들이 펼쳐져 있어 시골 마을치고는 부자가 많았다.

금성면 중전리는 우로는 당두봉, 좌로는 실우봉을 등지고 모양이 계란 같다는 계란봉이 있다. 충주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되어 고지대에서 밭농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오곡을 고루 재배하는 전형적인 농촌이다.

한수면 북노리는 연안이씨 집성촌으로 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넓은 들이 펼쳐진 곡창지대였다. 마을 뒷산에는 산약초가 많이 났었으며 토질 또한 비옥하여 여러 가지 농작물이 잘 되기로 유명하였다. 한수면 명오리는 남한강과 제천천이 합류하는 아래지점에 강변을 따라 조성된 마을로 강변 특유의 비옥한 토질로 농사가 잘 되었다.⁸⁾



<그림 1> 도화리 <그림 2> 황석리 <그림 3> 후산리 <그림 4> 지곡리



<그림 5> 중전리 <그림 6> 북노리 <그림 7> 명오리

* 수몰 전 각 지역별 지도 (1980년 수정판 자료)

<표 4> 연구대상 제천시 전통주거의 현황

문화재명	시기	건축물 구성	이전 前 위치
제천 도화리고가	조선 말	안채+바깥채(소실)	청풍면 도화리
제천 황석리고가	조선 말	안채+바깥채	청풍면 황석리
제천 후산리고가	조선 말	안채+바깥채(소실)	청풍면 후산리
제천 지곡리고가	미상	안채+행랑채+문간채+곳간채+사랑채 및 사당(소실)	수산면 지곡리
제천 중전리고가	조선 말	안채+사랑채+방앗간채	금성면 중전리
제천 김세균고가	조선 말	사랑채+곳간채+안채(이전)	한수면 북노리
제천 명오리고가	미상	안채+사랑채+곳간채	한수면 명오리

3.2. 창호 사례조사

(1) 연구대상 현황

제천시에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9채의 전통주거가 있으며 그 중 2채⁹⁾는 국가지정문화재이며 나머지 7채는 시도지정문화재이다. 본 연구는 연구범위의 한계상 <표 4>와 같이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7채의 전통주거(충청북도 유형문화재 6채,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1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례들은 모두 1985년의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현재 이전·복원되어 있는 상태이다.

연구대상 사례들의 창호는 설치위치, 개폐방식, 기능, 살대의 모양에 따른 형태 및 크기들을 조사하였으며 창호의 크기는 문설주를 제외한 순수한 개구부의 크기 즉, 창틀의 크기를 실측하였다.

7) 제천시지편찬위원회, 제천시지(上), 초판, 대유출판사, 제천, 2004, p.80, p.87

8) 충주댐 수몰마을사 편찬위원회, 충주댐수몰마을사(제천편), 초판, 국제문화인쇄사, 제천, 2001, pp.138-480

9) 중요민속문화재인 박도수가옥과 정원태가옥이 있다.

2) 연구대상 창호 사례조사

<표 5> 『제천 도화리고가』의 창호 현황 및 창호 평면도

번호	안채(1)	안채(2)	안채(3)	안채(4)	안채(5)	안채(6)
창호 사진						
위치	상방					작은부엌
개폐방식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기능(문짝 수, 머름)	독창(1)	쌍창(머름)	독창(1)	쌍창(벽장)	독창(다락)	쌍창(2)
형태(살대)	세살	세살	세살	정자살	정자살	판장문
크기(WxH)	530x1200	1240x1150	590x1440	690x570	690x1170	780x1390
안채(7-上)	안채(7-下)	안채(8-上)	안채(8-下)	안채(9)	안채(10)	안채(11)
작은부엌			건넌방			
여닫이	불박이	여닫이	여닫이	불박이	여닫이	여닫이
광창(다락)	봉창	광창(다락)	쌍창(2)	봉창	쌍창(도머름)	분합(2)
정자살	세로살	정자살	판장문	세로살	세살	정자살
530x540	790x390	440x600	780x1480	760x900	940x900	720x1710
안채(12)	안채(13)	안채(14)	안채(15)	안채(16)	안채(17)	안채(18)
건넌방			대청		옷방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눈꼽매기창	쌍창(벽장)	독창(다락)	쌍창(머름)		독창(1)	
세살	용자살	용자살	세살		세살청판	
420x960	770x580	650x1450	1050x1180	1050x1180	1050x1180	690x1630
안채(19)	안채(20)	안채(21)	안채(22)	안채(23)	안채(24)	안채(25)
옷방			안방			
여닫이	여닫이	벼락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장지(2)	독창(1)	광창	쌍창(머름)	독창(1)	독창(다락)	쌍창(벽장)
정자살	세살청판	정자살	세살	세살	맹장지	용자살
640x1620	660x1370	940x610	980x1010	680x1150	650x1180	870x580
안채(26-上)	안채(26-下)	안채(27-上)	안채(27-下)	안채(28)	안채(29)	
부엌						· 크기 (순수 개구부의 크기) - W(창틀 폭) x H(창틀 높이), 단위(mm)
벼락닫이	불박이	벼락닫이	불박이	여닫이	여닫이	
광창(다락)	봉창	광창(다락)	봉창	쌍창(2)	독창(1)	
정자살	세로살	정자살	세로살	판장문	판장문	
590x360	1080x390	440x440	740x410	930x1640	810x1410	



· 도화리고가는 중앙의 대청을 중심으로 '건넌방+작은부엌+상방'과 '옷방+안방+부엌'의 'ㄷ'자형 평면구성으로 되어 있다. 대청은 머름이 있는 여닫이 형식의 2짝 세살창호, 안방과 건넌방 또한 여닫이 형식의 세살창호, 부엌은 여닫이 형식의 판장문과 살창이 설치되어 있다.

4. 제천시 전통주거의 창호 특성 분석

4.1. 현황

<표 6> 『제천 황석리고가』의 창호 현황 및 창호 평면도

번호	안채(1)	안채(2)	안채(3)	안채(4)	안채(5)	
창호 사진						
위치	부엌			안방		
개폐방식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미닫이
기능(문짝 수, 머름)	쌍창(2)	독창(1)	쌍창(2)	독창(1)	쌍창(머름)	흑창
형태(살대)	판장문	세살	판장문	세살	세살	맹장지
크기(WxH)	1100x1560	445x1200	890x1720	700x1170	1100x1050	
안채(6)	안채(7)	안채(8)	안채(9)	안채(10)		안채(11)
안방			옷방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미닫이	여닫이
독창(벽장)	독창(벽장)	장지(3)	독창(1)	쌍창(머름)	흑창	장지(3)
정자살	정자살	맹장지	세살	세살	맹장지	맹장지
400x550	400x550	2160x1735	685x1180	1100x1050		2130x1750
안채(12)	안채(13)	안채(14)	안채(15)	안채(16)	안채(17)	
사랑방			방1	방2		
여닫이	여닫이	미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독창(1)	쌍창(머름)	흑창	독창(1)	독창(1)	독창(1)	독창(1)
세살	세살	맹장지	세살	세살	세살	세살
630x1190	1120x1050		540x1280	630x1200	630x1190	730x1420
바깥(18)	바깥(19)					
방2	대문	『황석리고가』의 창호 평면도(左) 및 안채 전경(右)				
여닫이	여닫이	· 황석리고가의 안채는 '부엌+안방+옷방+사랑방'으로 된 'ㄷ'자형 평면이다. 안방, 옷방, 사랑방은 안마당을 향하여 2겹의 창호(쌍창+흑창)이며 나머지는 여닫이 형식의 1짝 세살창호로 되어 있다. 부엌은 여닫이 형식의 판장문이 설치되어 있다. 바깥채는 여닫이 형식의 1짝 세살창호로 되어 있다.				
광창	쌍창(2)					
정자살	판장문					
600x450	2000x2130					

연구대상인 7채의 전통주거는 <표 4>와 같이 대부분 조선말에 건립10)되었으며 충청북도 유형문화재(6채)와 충청북도 민속문화재(1채, 제천 명오리고가)로 지정된 문화재들이다. 이들은 모두 1985년 충주댐의 건설로 인하여 본래의 장소에서 이전된 경우로 김세균고가11)와 명오리고가는 1983년에 한수면 북노리와 명오리에서, 중전리고가는 현 위치에서 약 400m 정도 떨어진 중전리에서 옮겨졌다. 또한 나머지 4채인 도화리고가, 황석리고가, 후산리고가, 지곡리고가는 각각 청풍면과 수산면에서 청풍문화재단지12)로 이전되어 복원된 상태이다.

10) 지곡리고가와 명오리고가의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려지지 않았다.
11)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경○○(76세) 할머니의 인터뷰에 의하면, 수물지역에서 사랑채만을 시아버지가 쌀 50가마를 주고 사서 1983년에 한수면 북노리에서 현재의 장소인 한수면 송계리로 이전하여 건립하였다고 한다. 안채는 충주로 이전되었다고 하나 현재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표 7> 『제천 후산리고가』의 창호 현황 및 창호 평면도

번호	안채(1-上)	안채(1-下)	안채(1-1)	안채(2-上)	안채(2-下)	안채(3)
창호 사진						
위치	부엌					
개폐방식	불박이	여닫이	불박이	여닫이	불박이	여닫이
기능(문짝 수, 머름)	봉창	쌍창(2)	봉창	광창(다락)	봉창	쌍창(2)
형태(살대)	세로살	판장문	세로살	세살	세로살	판장문
크기(WxH)	전면	900x1670	전면	540x590	1470x240	880x1670
안채(4)	안채(5)	안채(6)	안채(7)	안채(8)	안채(9)	
부엌	안방1					
여닫이	여닫이	미닫이	여닫이	미닫이	여닫이	미서기
독창(1)	독창(다락)	쌍창(벽장)	쌍창(머름)	흑창,감창	쌍창(머름)	장지(5)
골판문	맹장지	맹장지	세살	맹장지	세살	맹장지
510x1170	620x1360	770x580	1070x1270	950x1180	2570x1660	
안채(10)	안채(11)	안채(12)	안채(13)	안채(14)	안채(15)	안채(16)
	안방2		옷방		상청	대청
여닫이	여닫이	미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독창(1)	독창(머름)	독창(1)	독창(1)	독창(1)	쌍창(머름)	쌍창(머름)
세살청판	세살	맹장지	세살	세살	맹장지	골판문
620x1640	540x1190	620x1280	530x1350	630x1320	1160x1660	1030x1180
안채(17)	안채(18)	안채(19)	안채(20)	안채(21)		
	건넌방1			건넌방2		
여닫이	여닫이	미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미닫이
쌍창(2)	쌍창(높은 퇴)	흑창,감창	독창(1)	쌍창(벽장)	쌍창(높은 퇴)	흑창,감창
정자(복합)	세살	맹장지	정자(변형)	정자(변형)	세살	맹장지
1030x1630	1080x1200	590x1400	980x730	1080x1260		
안채(22)	안채(23)					
	건넌방2					
여닫이	여닫이	미닫이				
쌍창(머름)	쌍창(토머름)	흑창,감창				
세살	세살	맹장지				
1010x1190	1030x1180					



· 후산리고가는 중앙의 대청을 중심으로 '건넌방'과 '옷방+안방+부엌'의 'ㄱ'자형 평면구성으로 되어 있다. 대청은 머름이 있는 여닫이 형식의 2짝 골판문, 안방과 건넌방은 안마당을 향하여 2겹의 창호(쌍창+흑창, 감창 포함)이며 나머지는 여닫이 형식의 세살창호로 되어 있다. 부엌은 여닫이 형식의 판장문과 살창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김세균고가(13)이며 얼마 전까지 사람이 거주했던 명오리고가(14)는 현재 비어 있다. 중전리고가는 진주류씨 문중에서 재실로 사용하고

- 제천시 청풍면 물대리에 조성된 문화재단지로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 위기에 있던 지역의 문화재들을 1983년부터 3년간 원형 그대로 이전하여 복원하였다.
- 몇 년 전 할아버지의 작고로 현재 할머니 혼자 생활하고 있다.
- 2011년까지 거주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그 해 여름 많은 비로 인하여 지붕이 허물어지는 등 많은 보수가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차일피일 보수가 미뤄지고 있었고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있으며 도화리고가, 황석리고가, 후산리고가, 지곡리고가는 청풍문화재단지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표 8> 『제천 지곡리고가』의 창호 현황 및 창호 평면도

번호	안채(1)	안채(2)	안채(3)	안채(4)	안채(5)	안채(6)
창호 사진						
위치	고방	부엌				
개폐방식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불박이
기능(문짝 수, 머름)	쌍창(2)	쌍창(불장)	쌍창(2)	쌍창(2)	쌍창(2)	봉창
형태(살대)	판장문(통판)	판장문	판장문	판장문(통판)	판장문	세로살
크기(WxH)	760x1260	500x1160	880x1710	690x1270	760x1540	880x370
안채(7)	안채(8)	안채(9)	안채(10)	안채(11)	안채(12)	안채(13)
	안방				대청	건넌방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쌍창(벽장)	독창(토머름)	독창(토머름)	독창(1)	독창(1)	쌍창(2)	독창(1)
정자(변형)	세살	세살	세살	세살	골판문	세살
750x510	640x920	710x1240	630x1220	650x1180	990x990	600x1230
안채(14)	안채(15)	안채(16)	안채(17)	안채(18)	안채(19)	문간(20)
	건넌방				중문	대문
여닫이	여닫이	불박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독창(토머름)	쌍창(반침)	광창(반침)	쌍창(2)	독창(1)	쌍창(2)	쌍창(2)
세살	맹장지	세로살(하부설치)	세살	세살	판장문	사립문
640x1200	1230x1250	550x440	960x1200	560x1180	1140x1780	1410x2000
문간(21)	문간(22-上)	문간(22-下)	행랑(23)	행랑(24)	행랑(25)	행랑(26)
	외양간		방1		방2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쌍창(2)	쌍창(다락)	독창(1)	독창(1)	독창(1)	독창(1)	독창(1)
판장문	판장문(통판)	판장문	세살	세살	세살	세살
880x1260	640x590	730x1540	550x1020	670x1140	580x1130	640x1210
행랑(27)						
방2						
불박이						
광창						
세로살(하부설치)						
380x520						



· 지곡리고가의 안채는 중앙의 대청을 중심으로 '건넌방'과 '안방+부엌+고방'의 'ㄱ'자형 평면구성으로 되어 있다. 대청은 머름 없이 여닫이 형식의 2짝 골판문, 안방과 건넌방은 여닫이 형식의 세살창호, 부엌은 여닫이 형식의 판장문과 살창이 설치되어 있다. 행랑채는 여닫이 형식의 1짝 세살창호, 문간채는 여닫이 형식의 판장문이 설치되어 있다.

<표 13>과 같이 황석리고가와 후산리고가 방가, 중전리고가는 부농의 민가이며 나머지 사례들은 일반 민가들이다.

<표 9> 『제천 중전리고가』의 창호 현황 및 창호 평면도

번호	안채(1)	안채(2)	안채(3-上)	안채(3-下)	안채(4)	안채(5)
창호 사진						
위치	부엌			안방		
개폐방식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불박이	여닫이	여닫이
기능(문짝 수, 머름)	독창(1)	독창(1)	광창(다락)	봉창	쌍창 (토머름)	독창(1)
형태(살대)	관장문	관장문	정자살	세로살	세살	세살청판
크기(WxH)	850x1450	820x1670	600x510	1510x300	1020x1230	650x1530
안채(6)	안채(7-上)	안채(7-下)	안채(8)	안채(9)	안채(10)	사랑(11)
안방	대청		건넌방		사랑방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독창(1)	쌍창(벽장)	독창(머름)	쌍창(머름)	독창(1)	쌍창 (토머름)	쌍창(2)
세살	맹장지	관장문	관장문	세살청판	세살	세살
590x1520	610x900	940x600	1090x1150	710x1770	1080x1190	1060x1200
사랑(12)	사랑(13)	사랑(14)	사랑(15)	사랑(16)	사랑(17)	사랑(18)
사랑방			대문		아랫방	
여닫이	들어열개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쌍창(2)	분합(4)	쌍창 (토머름)	쌍창 (토머름)	쌍창(2)	독창(1)	쌍창(2)
세살	정자(복합)	세살	세살	관장문	세살	세살
1060x1200	1990x1740	1060x1160	1060x1160	1720x1760	600x1140	900x1140
사랑(19)	사랑(20)	사랑(21)	사랑(22)	<p>『중전리고가』의 창호 평면도</p>		
아랫방		웃방				
여닫이	여닫이	불박이	여닫이			
독창(1)	독창(1)	광창	쌍창(2)			
세살	세살	세로살	세살			
520x1190	520x1190	1070x350	1090x1500			

· 중전리고가의 안채는 중앙의 대청을 중심으로 '건넌방'과 '안방+부엌'의 'ㄱ'자형 평면구성으로 되어 있다. 대청은 머름이 있는 여닫이 형식의 관장문, 안방과 건넌방은 여닫이 형식의 세살 및 세살청판 창호, 부엌은 여닫이 형식의 관장문과 살창이 설치되어 있다. 사랑채는 대문을 중심으로 '웃방+아랫방+부엌+외양간'과 '사랑방+대청'의 'ㄱ'자형 평면으로 사랑방은 여닫이 형식의 2짝 세살창호이며 대청 쪽으로는 4분합 들어열개 형식의 정자살로 구성되어 있다.

4.2. 공간 구성별 창호 특성

(1) 안채

연구대상은 사랑채만 존재하는 김세균고가를 제외한 6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 13>과 같이 대부분 '부엌+안방+(웃방)+대청+건넌방'의 'ㄱ'자형 평면구성을 하고 있다.

1) 부엌

안채의 부엌 출입구 창호는 여닫이 형식의 2짝 관장문이 일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외적으로 중전리고가는 1짝, 도화리고가는 안마당 쪽이 2짝이며 장독대가

15) 서쪽의 작은부엌은 크기가 작은 2짝의 관장문이 안마당과 뒤쪽에 설치되어 있다.

있는 뒷마당 쪽이 1짝의 관장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 『제천 김세균고가』의 창호 현황 및 창호 평면도

번호	사랑(1)	사랑(2)	사랑(3)	사랑(4)	사랑(5)	사랑(7)	
창호 사진							
위치	마루방					웃방1	
개폐방식	들어열개	들어열개	들어열개	들어열개	들어열개	여닫이	
기능(문짝 수, 머름)	분합(4)	분합 (4,머름)	분합 (4,머름)	분합 (4,머름)	장지(5)	불발기(4)	
형태(살대)	세살청판	세살	세살	세살	맹장지	완자살	
크기(WxH)	2060x1940	1980x1650	1970x1650	1940x1630	3170x1880	2150x1980	
사랑(6)		사랑(8)	사랑(9)		사랑(11)	사랑(12)	
웃방1			안방				
여닫이	미닫이	여닫이	여닫이	미닫이	여닫이	여닫이	
쌍창(머름)	영창, 갑창	쌍창(2)	쌍창(머름)	영창,갑창	쌍창(벽장)	쌍창(2)	
세살	용자살	맹장지	세살	용자살	맹장지	맹장지	
1070x1240		980x1960		1080x1230		1100x530	
사랑(10)		사랑(13)		사랑(14-上)		사랑(14-下)	
안방			부엌				
여닫이	미닫이	미닫이	여닫이	미닫이	불박이	여닫이	
쌍창(머름)	혹창	영창,갑창	쌍창(머름)	영창,갑창	봉창	독창(1)	
세살	맹장지	용자살	세살	용자살	세로살	세살	
1080x1240		1080x1270		전면		670x1290	
사랑(26)	사랑(15-上)	사랑(15-下)	사랑(16)	사랑(17)	사랑(18)	사랑(20)	
부엌			웃방2				
여닫이	버락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쌍창(2)	광창(다락)	독창(1)	독창(1)	쌍창(벽장)	쌍창(다락)	장지(4)	
골판문	정자살	관장문	관장문 (통판)	맹장지	맹장지	맹장지	
860x1690	890x590	810x1680	290x540	510x520	1000x1400	1940x1900	
사랑(19)		사랑(21)	사랑(22)		사랑(23)		
웃방2			웃방3				
여닫이	미닫이	여닫이	여닫이	미닫이	여닫이	미닫이	
쌍창 (통머름)	영창,갑창	독창(머름)	쌍창(머름)	영창,갑창	쌍창 (통머름)	영창,갑창	
세살	용자살	세살	세살	용자살	세살	용자살	
1060x1280		630x1350		1090x1230		1060x1280	
사랑(24)	사랑(25)	<p>『제천 김세균고가』의 창호 평면도(左) 및 전경(右)</p>					
건넌방							
여닫이	여닫이						
독창	독창(1)						
세살청판	세살						
660x1530	610x1130						

· 김세균고가는 부엌을 중앙에 두고 '웃방+건넌방'과 '안방+웃방+마루방'의 'ㄱ'자형 평면구성으로 되어 있다. 안방과 웃방은 2겹의 창호(쌍창+영창, 갑창 포함)이며 특히 안방은 안마당을 향하여 3겹의 창호(쌍창+혹창+영창, 갑창 포함)가 설치되어 있다. 건넌방은 여닫이 형식의 1짝 세살 및 세살청판 창호, 마루방은 4분합 들어열개 형식의 세살 및 세살청판 창호로 구성되어 있다.

<표 11> 『제천 명오리고가』의 창호 현황 및 창호 평면도

번호	안채(1)	안채(2)	안채(3-上)	안채(3-下)	안채(4)	안채(5)
창호 사진						
위치	부엌			안방		
개폐방식	여닫이	불박이	불박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기능(문짝수, 머름)	쌍창(2)	봉창	봉창	쌍창(2)	쌍창(벽창)	쌍창(2)
형태(살대)	관장문	세로살	세로살	관장문	맹장지	세살
크기(WxH)	750x1720	510x430	780x500	780x1520	930x530	820x1230
안채(6)	안채(7)	안채(8)	안채(9)	안채(10)	안채(11)	안채(12)
	안방		웃방	대청	건넌방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불박이
독창(1)	독창(1)	독창(1)	독창(1)	쌍창(2)	독창(1)	광창
세살	세살	세살	세살	관장문	세살	세로살
660x1240	660x1240	660x1250	660x1240	770x1240	670x1240	520x400
안채(13)	사랑(14)	사랑(15)	사랑(16)	사랑(17)	사랑(18)	사랑(19)
건넌방	안사랑방			대문	사랑방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불박이	여닫이	여닫이	여닫이
독창(1)	독창(1)	독창(토머름)	광창	쌍창(2)	독창(1)	독창(1)
세살	세살	세살	세로살	관장문	세살	세살
650x1230	660x1300	630x1020	1160x530	2100x2350	650x1240	640x1180
사랑(20)	사랑(21)					
		『명오리고가』의 안채는 중앙의 대청을 중심으로 '건넌방'과 '웃방+안방+부엌'의 'ㄱ'자형 평면구성으로 되어 있다. 안방, 웃방, 건넌방은 여닫이 형식의 세살창호, 부엌은 여닫이 형식의 관장문과 살창이 설치되어 있다. 사랑채는 대문을 중심으로 '안사랑방'과 '사랑방+외양간+방앗간+광'의 'ㄱ'자형 평면구성으로 되어 있다. 안사랑방과 사랑방은 여닫이 형식의 세살창호, 광은 여닫이 형식의 관장문으로 되어 있다.				

2작 관장문의 크기는 안마당 쪽은 폭이 750mm(명오리)~1,100mm(황석리)이며 높이는 1,390mm(도화리) 작은부엌)~1,720mm(명오리)이다. 뒷마당 쪽은 폭이 760mm(지곡리)~890mm(황석리)이며 높이가 1,480mm(도화리) 작은부엌)~1,720mm(황석리)으로 조사되었다. 부엌의 안마당 쪽 창호는 대체로 뒷마당 보다 폭이나 높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부엌과 안마당과의 출입 빈도가 뒷마당 보다 많은 기능적 이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부엌의 환기와 채광을 위해 황석리(고가16)를 제외하고 부뚜막 옆에 모두 살창으로 된 봉창을 설치하였으며, 안마당(명오리, 후산리, 중전리) 또는 뒷마당(지곡리) 1곳에 설치한 사례와 모두 설치(도화리)한 경우로 구분된다.

16) <그림 8>과 같이 살창 대신에 측벽 상부를 개방하여 채광 및 환기를 하고 있다.

<표 12> 연구대상 전통주거의 창호 분석표

문화재명	공간명	실명	개폐방식(사용횟수)	기능(사용횟수)	형태(사용횟수)	창호갯수	
도화리	안채	대청	H(3)	T(3)	細(3)	3	
		안방	H(4)	O(2), T(2)	細(2), 用(1), 盲(1)	4	
		웃방	H(3), L(1)	O(2), G(1), J(1)	廳(2), 井(2)	4	
		건넌방	H(5)	T(2), O(1), N(1), D(1)	細(2), 用(2), 井(1)	5	
		상방	H(5)	O(3), T(2)	細(3), 井(2)	5	
		부엌	H(6), F(4), L(2)	T(3), B(4), G(4), O(1)	板(4), 直(4), 井(4)	12	
황석리	안채	안방	H(5), S(1)	O(3), T(1), J(1), K(1)	細(2), 井(2), 盲(2)	6	
		웃방	H(3), S(1)	O(1), T(1), J(1), K(1)	細(2), 盲(2)	4	
		사랑방	H(3), S(1)	O(2), T(1), K(1)	細(3), 盲(1)	4	
		부엌	H(3)	T(2), O(1)	板(2), 細(1)	3	
후산리	안채	방	H(4)	O(3), G(1)	細(3), 井(1)	4	
		대청	H(1)	T(1)	骨(1)	1	
		안방	H(5), S(3), DS(1)	O(4), T(3), J(1), K(1)	盲(5), 細(3), 廳(1)	9	
		웃방	H(2)	O(2)	細(2)	2	
지곡리	안채	건넌방	H(7), S(3)	T(6), K(3), O(1)	細(4), 井(3), 盲(3)	10	
		부엌	H(4), F(3)	B(3), T(2), O(1), G(1)	直(3), 板(2), 細(1), 骨(1)	7	
		대청	H(1)	T(1)	骨(1)	1	
		안방	H(5)	O(4), T(1)	細(4), 井(1)	5	
		건넌방	H(5), F(1)	O(3), T(2), G(1)	細(4), 直(1), 盲(1)	6	
		고방	H(1)	T(1)	板(1)	1	
중전리	안채	부엌	H(4), F(1)	T(4), B(1)	板(4), 直(1)	5	
		행랑	방	H(4), F(1)	O(4), G(1)	細(4), 直(1)	5
		문간	외양간	H(3)	T(2), O(1)	板(3)	3
		대청	H(3)	T(2), O(1)	板(2), 盲(1)	3	
		안방	H(3)	O(2), T(1)	細(2), 廳(1)	3	
		건넌방	H(2)	O(1), T(1)	細(1), 廳(1)	2	
김세균	사랑	부엌	H(3), F(1)	O(2), B(1), G(1)	板(2), 井(1), 直(1)	4	
		사랑방	H(4), W(1)	T(4), D(1)	細(4), 井(1)	5	
		웃방	H(1), F(1)	T(1), G(1)	細(1), 直(1)	2	
		아랫방	H(4)	O(3), T(1)	細(4)	4	
		마루방	W(5)	D(4), J(1)	細(3), 廳(1), 盲(1)	5	
		안방	H(4), S(3)	T(4), Y(2), K(1)	盲(3), 細(2), 用(2)	7	
명오리	안채	웃방	H(11), S(5)	T(8), Y(5), O(1), J(1), Z(1)	細(6), 用(5), 盲(4), 井(1)	16	
		건넌방	H(2)	O(2)	細(1), 廳(1)	2	
		부엌	H(4), F(1), L(1)	O(3), T(1), B(1), G(1)	板(2), 細(1), 直(1), 井(1), 骨(1)	6	
		대청	H(1)	T(1)	板(1)	1	
법례	안채	안방	H(5)	O(3), T(2)	細(4), 盲(1)	5	
		웃방	H(1)	O(1)	細(1)	1	
		건넌방	H(2), F(1)	O(2), G(1)	細(2), 直(1)	3	
		부엌	H(2), F(2)	T(2), B(2)	板(2), 直(2)	4	
		안사랑	H(2), F(1)	O(2), G(1)	細(2), 直(1)	3	
		사랑	사랑방	H(2), F(1)	O(2), G(1)	細(2), 直(1)	3
법례	안채	광	H(1)	T(1)	板(1)	1	
		개폐방식	여닫이(H), 미닫이(S), 미서기(DS), 불박이(F), 버락닫이(L), 들어열개(W)				
		기능	독창(O), 쌍창(T), 봉창(B), 광창(G), 눈썹끼창(N), 장지(J), 분합(D), 영창(Y), 흑창(K), 불발기(Z)				
법례	안채	형태	세살(細), 세살청판(廳), 정자살(井), 용자살(用), 관장문(板), 골판문(骨), 세로살(直), 맹장지(盲), 완자살(完)				

<표 13> 안채의 공간구성(김세균고가 제외)

평면형태	문화재명	평면 구성	비고
'ㄱ'형	황석리	부엌+안방+웃방+사랑방	반가
'ㄱ'형	명오리	부엌+안방+웃방+대청+건넌방	민가
	지곡리	고방+부엌+안방+대청+건넌방	민가
	후산리	부엌+안방+웃방+대청+건넌방	반가
	중전리	부엌+안방+대청+건넌방	민가(부농)
'ㄷ'형	도화리	부엌+안방+웃방+대청+건넌방+작은부엌+상방	민가

'-'는 평면구성에서 꺾이는 부분임



<그림 8>
『황석리고가』
부엌 측벽 상부

<그림 9>
『도화리고가』
작은부엌
뒷마당 쪽
2단 살창

<그림 10> 『후산리고가』
부엌의 출입구 상부(左) 및
벽체 상부(右) 살창

또한 살창은 <그림 10>과 같이 부뚜막 이외에도 부엌 출입구(후산리, 명오리, 도화리) 또는 벽체(후산리)의 상단에도 설치되었다. 살창의 폭은 510mm(명오리)~1,510mm(중전리)으로 다양하지만 높이는 약 400mm 내외가 대부분¹⁷⁾이다. 부뚜막 상단으로 벽장(황석리, 지곡리, 명오리) 또는 벽장과 다락(도화리, 후산리, 중전리)을 설치하고 다락의 경우는 채광과 환기를 위한 광창을 두었다. 광창은 1짝 정자살이 대부분¹⁸⁾이며 개폐방식은 여단이(후산리, 중전리, 도화리 작은부엌)와 벼락단이(도화리)로 구분된다. 크기는 폭이 440mm(도화리)~600mm(중전리), 높이가 360mm(도화리)~600mm(후산리)이다. 또한 황석리고가(여단이, 1짝 세살문)와 후산리고가(여단이, 1짝 골판문)에서는 부엌과 인접한 안방과의 동선 연결을 위해 뒷마루 쪽으로 별도의 창호가 설치되었다.

2) 안방

안방의 창호를 안마당, 뒷마당, 부엌과 옷방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지곡리고가 제외) 안마당 쪽으로 쪽마루 또는 뒷마루와 연결된 여단이 형식의 2짝 세살 창호로 되어 있다. 또한 명오리고가를 제외하고 모두 창호 하부에 머름이 있으며 특히, 중전리고가의 경우는 <그림 11>과 같이 토머름이 설치되어 있다. 반가인 황석리고가와 후산리고가는 안마당을 향하여 외부는 여단이 형식의 세살 창호, 실내는 미단이 형식의 맹장지로 된 흑창(황석리) 또는 흑창과 갑창(후산리)의 2겹 창호로 되어 있다. 크기(2짝)는 폭이 820mm(명오리)~1,100mm(황석리), 높이가 1,010mm(도화리)~1,270mm(후산리)이고 특히, 반가인 황석리고가와 후산리고가, 부농주거인 중전리고가에서는 폭이 넓게 조사되었다. 뒷마당 쪽의 창호는 대부분¹⁹⁾ 여단이 형식의 1짝 세살 창호이며 크기(1짝)는 폭이 540mm(후산리)~710mm(지곡리), 높이가 920mm(지곡리)~1,240mm(지곡리, 명오리)²⁰⁾이다. 안방에서 부엌 쪽은 벽장과 다락²¹⁾의 창호가 설치되는데, 벽장은 대부분²²⁾

여단이 형식의 2짝이며 형태는 맹장지, 용자살, 정자살로 구분된다. 크기(2짝)는 폭이 750mm(지곡리)~950mm(명오리), 높이가 510mm(지곡리)~580mm(도화리, 후산리)이다. 다락은 사람의 출입이 가능해야 함으로 여단이 형식의 1짝이며 형태는 맹장지와 용자살로 구분된다. 크기(1짝)는 폭이 620mm(후산리)~650mm(도화리), 높이가 1,180mm(도화리)~1,450mm(도화리 작은부엌)이다.

안방에서 대청 쪽²³⁾은 여단이 형식의 1짝으로 구성되며 형태는 세살과 세살청판으로 나뉜다. 세살청판은 반가인 후산리고가와 부농주거인 중전리고가에서 사용되었다. 크기(1짝)는 폭이 620mm(후산리)~660mm(명오리), 높이가 1,180mm(지곡리)~1,640mm(후산리)이다.

3) 대청

대청의 뒷마당 쪽 창호는 2짝의 여단이 형식이며 골판문(후산리, 지곡리), 판장문(중전리, 명오리), 세살(도화리) 형태로 되어 있다. 머름 또한 설치된 곳(도화리, 후산리, 중전리)과 설치되지 않은 곳(지곡리, 명오리)으로 구분된다. 크기(2짝)는 폭이 770mm(명오리)~1,090mm(중전리), 높이가 990mm(중전리)~1,240mm(명오리)이다.

4) 건넌방

건넌방의 창호를 안마당, 뒷마당, 대청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반가인 후산리고가는 안마당 쪽으로 여단이의 쌍창(세살)과 미단이의 흑창(맹장지, 갑창 포함)으로 된 2겹의 창호로 되어 있다. 지곡리고가는 여단이의 1짝 세살 창호, 명오리고가는 불박이의 세로살로 된 광창, 중전리고가는 창호 없이 벽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안마당 쪽으로 부뚜막이 설치되어 있다. 건넌방의 난방 및 작업공간인 안마당과의 연계를 위한 실용적 구성으로 분석된다. 크기는 2짝(후산리)이 1,080mm×1,260mm, 1짝(지곡리)이 560mm×1,180mm이다. 뒷마당 쪽은 중전리고가와 명오리고가에서는 벽체, 후산리고가는 벽장(2짝 여단이의 변형된 정자살, 980mm×730mm), 지곡리고가는 반침(2짝 여단이의 맹장지, 1,230mm×1,250mm), 도화리고가에서는 출입이 가능한 여단이 형식의 2짝 세살 창호(940mm×900mm)가 설치되어 있다. 대청 쪽은 여단이 형식의 1짝 세살 창호가 일반적(지곡리, 중전리²⁴⁾, 명오리)이며, <그림 13>과 같이 후산리고가에서는 2짝의 복합 형태의 정자살, 도화리고가²⁵⁾에서는 1짝의 정자살 창호와 정자살로 된 2짝 분함으로 구성되어 고급스럽게 처리되고 있다. 크기(1짝)는 폭이 600mm(지곡리)~720mm(도화리), 높이가 1,200mm

17) 후산리고가(240mm)와 중전리고가(300mm)에서는 높이는 작지만 폭이 다른 사례보다 넓다. 또한 <그림 9>와 같이 도화리고가의 작은부엌에서 뒷마당 쪽 살창을 2단으로 구성하여 높이가 900mm이다.

18) 후산리고가는 세살이지만 정자살에 가까운 형태이다.

19) 후산리고가는 2짝(쌍창)의 세살 창호이며, <그림 12>와 같이 지곡리고가는 토머름이 설치되어 있다.

20) 중전리고가는 1,520mm이지만 대부분이 1,200mm 내외이다.

21) 벽장만 설치(황석리, 지곡리, 명오리)되거나 벽장과 다락이 함께 설

치(도화리, 후산리, 중전리) 되어 있다.

22) 황석리고가는 1짝이지만 좌우로 2개가 설치되어 있고, 황석리고가와 중전리고가는 미단이 형식으로 되어 있다.

23) 황석리고가는 대청이 없으며 도화리고가는 건넌방에서 대청으로 연결된다.

24) 창호는 세살청판 형태로 되어 있다.

25) 안마당 쪽으로 여단이 형식의 1짝 세살 형태인 눈뚫이기창(420mm×960mm)을 설치하였다.

(지곡리)~1,770mm(중전리)이다.



<그림 11> 『중전리고가』 안방 안마당 쪽 창호의 토머름
 <그림 12> 『지곡리고가』 안방 뒷마당 쪽 창호의 토머름
 <그림 13> 『후산리고가』 건넌방의 안마당 쪽 창호(左)와 대청 쪽 복합 형태의 정자살(右)

(2) 사랑채 및 기타

<표 14> 사랑채의 공간구성(바깥채 및 행랑채 포함)

평면형태	문화재명	평면 구성	비고
'-'형	황석리(바깥채)	방1+방2+대문	반가
	지곡리(행랑채)	방1(2칸)+방2 문간채(대문+외양간+방앗간), 곳간채	민가
'ㄱ'형	중전리	옷방+아랫방(2칸)+한데부엌+외양간+대문(2칸)+사랑방(2칸)+대청	민가(부농)
	김세균	마루방+옷방1+안방(사랑방)+부엌+옷방2+옷방3+건넌방	반가
	명오리	안사랑방+대문+사랑방+외양간+방앗간+광	민가

'-'는 평면구성에서 꺾이는 부분임

연구대상은 바깥채가 소실된 후산리고가와 도화리고가를 제외한 5채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랑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조선후기 고급집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보온을 위하여 3겹으로 하였는데, 반가인 김세균 고가에서는 전면의 사랑마당으로 빛마루와 3겹의 창호 즉, 밖에서부터 쌍창→흑창→영창과 갑창²⁶⁾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랑방에 딸린 옷방과 안마당 쪽은 2겹 창호(쌍창→영창과 갑창)로 되어 있어 공간의 위계에 따라 창호 형식이 다를 수 있다.²⁷⁾ 쌍창은 하부에 머름을 설치하고 여단이 형식의 세살 창호, 흑창은 미단이 형식의 맹장지, 영창은 미단이 형식의 용자창호로 구성되어 있다. 창호의 크기(2짝)는 폭이 1,080mm이며 높이가 안마당 쪽이 1,270mm, 사랑마당 쪽이 1,240mm으로 폭은 같으나 높이에서 안마당 쪽이 사랑마당 쪽보다 약간 큰 것을 알 수 있다.

부농주거인 중전리고가에서 2칸의 사랑방은 안마당과 사랑마당 쪽으로 쪽마루를 두고 여단이 형식의 2짝 세살 창호를 설치하였으며 사랑마당 쪽으로는 토머름이 있다. 창호의 크기(2짝)에서 폭은 1,060mm로 같으나 높이는 안

마당 쪽(1,200mm)이 사랑마당(1,160mm)보다 약간 큰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민가인 명오리고가에서 안사랑방은 바깥마당 쪽의 상부 벽체에 세로살의 광창을, 안마당 쪽으로는 쪽마루에 여단이 형식의 1짝 세살 창호로 된 2개의 창호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중 대문에 인접한 창호(630mm×1,020mm)는 하부에 토머름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사랑방은 대문과 외양간에 인접하여 바깥마당과 안마당 쪽으로 여단이 형식의 1짝 세살 창호를 두었으며 창호의 크기는 바깥마당 쪽(640mm×1,180mm) 보다 안마당 쪽(650mm×1,240mm)을 크게 구성하고 있다. 이는 외부로는 폐쇄적이고 내부 즉, 안마당을 향하여는 개방적인 창호 구성을 하고 있음 알 수 있다.

황석리고가의 바깥채에서 2개의 방은 각각 안마당 쪽으로 여단이 형식의 1짝 세살 창호(630mm×1,200mm), 큰 방은 바깥마당 쪽으로 벽체 상부에 여단이 형식의 정자살 광창, 대문 쪽으로는 안마당 쪽보다 좀 더 큰 여단이 형식의 1짝 세살 창호(730mm×1,420mm)를 설치하였다. 이는 안채에서의 시선차단 등의 목적으로 대문 쪽으로 바깥채의 출입을 유도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곡리고가는 2개의 방으로 구성된 행랑채가 있으며 규모가 큰 2칸의 방은 안채의 건넌방과의 시선 차단을 위해 안채 쪽의 개구부는 없으며 행랑마당 쪽으로 여단이 형식의 1짝 세살 창호(670mm×1,140mm, 580mm×1,130mm)를, 대문이 있는 남쪽의 한데부엌 쪽으로 여단이 형식의 1짝 세살 창호(550mm×1,020mm)를 설치하고 있다.

마루방 또는 대청이 있는 김세균고가와 중전리고가를 살펴보면, 김세균고가의 마루방은 옷방과 인접하고 있으며 전면의 사랑마당으로 빛마루를 두고 들어열개 형식의 4짝 분합의 세살청판 창호(2,060mm×1,940mm), 나머지는 2면에는 쪽마루와 머름을 두고 들어열개 형식의 4짝 분합의 세살 창호(1,980mm×1,650mm, 1,970mm×1,650mm, 1,940mm×1,630mm)를 설치하였다. 마루방의 전면 창호를 인접한 옷방과 안방의 전면 머름과 연속되게 하부에 청판을 둔 세살청판 창호로 한 것은 사랑채의 정면성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또한 인접한 옷방과는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들어열개 형식의 5짝 장지문을 두었다.

중전리고가의 대청은 사랑방과 인접하여 항상 개방할 수 있도록 들어열개 형식의 4짝 분합의 정자살이 복합된 창호(1,990mm×1,740mm)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벽체는 창호 없이 개방되어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제천시 소재하고 충청북도 문화재로 지정된 7채의 전통주거를 대상으로 창호의 특성을 파악하고

26) 김세균고가는 본래의 안채(이전) 없이 사랑채만을 살림채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의 안방은 본래 사랑방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3겹의 창호는 쌍창→영창→흑창→갑창의 순서로 되어 있으나 이곳에서는 순서가 바뀌어 설치되어 있다. 갑창은 영창이나 흑창이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두꺼비집을 말하며 창이라기보다 가벽이라 할 수 있다.
 27) 건물의 전면인 사랑마당 쪽만 3겹의 창호이며, 나머지 방들에서는 2겹 창호로 구성되어 있다.

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안채의 부엌 출입구 창호는 여단이 형식의 2짝 판장문이 일반적이며, 판장문의 크기는 대체로 안마당 쪽이 뒷마당 보다 폭과 높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부엌과 안마당의 출입 빈도가 뒷마당 보다 많은 기능적 이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안마당 쪽 2짝 판장문의 크기는 폭 750mm~1,100mm, 높이 1,390mm~1,720mm이다.

부엌의 환기와 채광을 위해 부뚜막 옆에 살창으로 된 봉창이 있으며 안마당 쪽으로 설치한 사례가 많은 것은 공간적으로 안마당과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부뚜막 상단으로 다락이 있는 경우 채광과 환기를 위해 안마당 쪽으로 광창을 설치하였다. 이는 외부로는 폐쇄적이고 내부 즉, 안마당을 향하여는 개방적인 입면 구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창은 1짝 정자살이 대부분이며 개폐방식은 여단리와 벼락단리가 있다.

둘째, 안채의 안방 창호는 대부분 안마당 쪽으로 쪽마루 또는 뒷마루와 연결된 여단이 형식의 2짝 세살 창호이며 명오리고가를 제외하고 모두 머름이 설치되어 있다. 반가인 황석리고가와 후산리고가는 안마당을 향하여 외부는 여단이 형식의 세살 창호, 실내는 미단이 형식의 흑창 또는 흑창과 갑창으로 된 2겹의 창호이다. 크기(2짝)는 폭 820mm~1,100mm, 높이 1,010mm~1,270mm이다.

안방의 뒷마당 쪽은 대부분 여단이 형식의 1짝 세살 창호이다. 크기(1짝)는 폭 540mm~710mm, 높이 920mm~1,240mm이다. 안마당과 뒷마당 쪽 창호의 크기는 높이는 유사하지만 개구부의 폭은 안마당 쪽이 뒷마당 보다 넓다.

안방에서 부엌 쪽은 벽장과 다락의 창호가 설치되는데, 벽장은 대부분 여단이 형식의 2짝이며 형태는 맹장지, 용자살, 정자살이다. 크기(2짝)는 폭 750mm~950mm, 높이 510mm~580mm이다. 다락은 출입이 가능해야 함으로 여단이 형식의 1짝이며 형태는 맹장지와 용자살이다. 크기(1짝)는 폭 620mm~650mm, 높이가 1,180mm~1,450mm이다.

안방에서 대청 쪽은 여단이 형식의 1짝으로 구성되며 형태는 세살과 세살청판이 있다. 세살청판은 반가인 후산리고가와 부농주거인 중전리고가에서 사용되었다. 크기(1짝)는 폭 620mm~660mm, 높이 1,180mm~1,640mm이다.

셋째, 안채 대청의 뒷마당 쪽은 2짝 여단이 형식의 골판문, 판장문, 세살 창호가 있다. 크기(2짝)는 폭 770mm~1,090mm, 높이 990mm~1,240mm이다.

건넌방의 창호는 안마당 쪽으로 여단리의 쌍창과 미단리의 흑창으로 된 2겹의 창호, 여단리의 1짝 세살 창호, 불박이의 세로살로 된 광창, 창호 없이 벽체로 구성되어 있고, 뒷마당 쪽도 벽체, 벽장, 반침, 여단이 형식의 2짝 세살 창호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청 쪽은 여단이 형식의 1짝 세살 창호가 일반적이며 크기(1짝)는 폭 600mm~720mm, 높이 1,200mm~1,770mm이다.

넷째, 사랑채의 사랑방 창호를 살펴보면, 반가인 김세

균고가에서는 사랑마당으로 3겹의 창호(1,080mm×1,240mm) 즉, 창호 하부에 머름을 둔 여단이 형식의 세살 창호인 쌍창, 미단이 형식의 흑창과 미단이 형식의 용자살로 된 영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농주거인 중전리고가에서 사랑방은 여단이 형식의 2짝 세살 창호(1,060mm×1,160mm~1,200mm)를 설치하였고 외부에서 보이는 사랑마당 쪽으로도 머름을 두었다.

마루방이 있는 김세균고가는 전면을 들어열개 형식의 4짝 분합의 세살청판 창호(2,060mm×1,940mm), 나머지 벽체는 머름을 둔 들어열개 형식의 4짝 분합의 세살 창호(1,940mm~1,980mm×1,630mm~1,650mm)로 구성하여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전리고가의 대청은 사랑방과 인접하여 항시 개방할 수 있도록 들어열개 형식의 4짝 분합의 정자살이 복합된 창호(1,990mm×1,740mm)를 설치하였다.

본 연구는 제천 지역의 전통주거에서 나타나는 창호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서 창호의 형태는 일반적인 민가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기존 연구들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안채의 안방은 대부분 여단이 형식의 세살 창호이며 반가인 경우에는 여단리와 미단리로 된 2겹의 창호로 구성되어 있다. 대청은 여단이 형식의 골판문, 판장문 등, 부엌은 여단이 형식의 2짝 판장문이 일반적이고 부뚜막 옆으로 살창이 설치되어 있다.

반가 사랑채의 사랑방은 쌍창, 흑창, 영창으로 된 3겹의 창호, 대청과 마루방에서는 들어열개 형식의 4짝 분합의 창호로 구성되어 있다.

창호의 크기는 타 지역의 관련 자료들이 부족하여 단순히 제천 지역만을 분석하였고 타 지역과의 비교 분석은 다음 연구과제로 남겨두었다. 앞으로 각 지역마다 이러한 자료들이 축적된다면 지역에 따른 좀 더 세밀한 창호의 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동욱, 한국건축공작사연구, 초판, 기문당, 서울, 1993
2.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건축용어사전, 초판, 동녘, 파주, 2012
3. 박명덕, 한옥, 초판, 살림출판사, 파주, 2005
4. 박언곤, 한국건축사강론, 초판, 문운당, 서울, 1998
5.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초판, 일화당, 서울, 1991
6. 장기인, 목조, 초판, 보성각, 서울, 1996
7. 제천시지편찬위원회, 제천시지, 초판, 대우출판사, 제천, 2004
8. 주남철, 한국의 문과 창호, 초판, 대원사, 서울, 2012
9. 충주댐 수물마을사 편찬위원회, 충주댐수물마을사(제천편), 초판, 국제문화인쇄사, 제천, 2001
10.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답사수첩, 초판, 동녘, 파주, 2008
11. 이완근, 제천시 전통주거의 보존현황 및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4호, 2012.08
12. www.okjc.net(제천시)

[논문접수 : 2013. 06. 07]

[1차 심사 : 2013. 07. 17]

[게재확정 : 2013. 08. 09]